

진안홍삼 브랜드화 탄력

‘다가진 하루동안’ 특허청 홍삼분야 순수 우리말 우수상표 선정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순수 우리말 우수상표에 홍삼분야에선 유일하게 ‘다가진 하루동안’이 선정돼 진안홍삼 브랜드화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서 후원, 전국적인 신청을 받아 최종 7개 상표를 선정해 지난 26일 서울 여삼동 특허청 서물사무소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특허청에서 추진하는 순수 우리말 우수상표에 홍삼분야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진안홍삼 ‘다가진 하루동안’

‘다가진 하루동안’은 홍삼의 모든 성분을 다 가진 제품이라는 뜻으로 진안관내 기반을 둔 (주)에코파나스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진안군 최초로 홍삼농축액을 스티빙으로 포장하여 복용하기 편리한 진안홍삼의 대표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주)에코파나는 관내 대표적인 홍삼제조 기업으로 2013

년도에 설립되었으며 홍삼분야 특허 6건, 상표등록 4건을 취득하는 등 진안홍삼 연구개발 분야에서 선도 기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관내 최초 벤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2016년에는 HACCP, ISO22000 까지 받아 명실상부한 홍삼분야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김성훈 대표는 “우리 진안홍삼이 인지도나 브랜드에서 아직은 미흡하지만 군·사업단·연구소·홍삼 가공업체가 혼연일체 되어 진안홍삼 발전을 위해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비도 막을 수 없는 이웃사랑

무주 안성 공공기관·기업연합, 장기리서 재능나눔

무주군 안성면과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를 비롯한 공공 기관 및 기업연합회원들이 함께 하는 사회공헌활동이 27일 안성면에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재능 나눔을 통해 함께 행복한 전북을 만든다는 취지에서 진행된 것으로, 15개 기관 150여 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무주군 안성면 장기리 주민들(독거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을 펼쳤다.

봉사자들은 일일이 가정을 방문해 통신과 전기, 가스, 화재감지기, 도배, 장판 등을 점검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안성면사무소 2층에서는 한방진료(침구, 뜸, 부황 등)와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해 호응을 얻었다.

주민들은 “분야별 전문가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집부터 건강까지 두루두루 살펴주니 고마운 마음”이라며 “배운 대로 답배도 받고 건강관리도 신경 써서 잘해보겠다”고 전했다.

한편, 면사무소 주차장에서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 금연상담과 치과(틀니 살균 및 관리, 보관교육), 목공예, 농기계수리, 네일아트, 핸드폰 살균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빨래방차를 배치해 이불과 묶은 빨래도 도왔다.

봉사자들은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많은 분들과 만나 마음을 전할 수 있어 보람 있었다”며 “오늘이 시간이 어려운 이웃들의 추석을 조금 더 훈훈하게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진장 축산농협, 추석맞이 축산물 情나눔행사

무진장축산농협은 지난 27일 추석 명절을 맞이해, 장수읍 용계리 용계, 안양 마을 주민과 함께 지역 마을길 청소 및 축산물을 후원하고 당일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송제근 조합장은 “축산업에 대한 인식과 소의계축을 대상으로 대규모 축산단지 지역민들과의 환경개선 봉사활동을 통해 깨끗한 축산과 함께 더불어 상생하는 축산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여한 용계마을, 안양마을 이장은 “지역 경제를 위해 늘 애쓰는 무진장축산농협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 뜻깊은 후원과 봉사를 해주신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마을 주민들을 위한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해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장수군의회 의장 외 군의원 및 도의원, 장수읍장이 참석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김중문,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필요”

장수군의회 입시회 군정질문서... 의회, 29일까지 추경안 심사

장수군의회는 지난 6일 제283회 입시회 휴회가 장기화되며 폐회되어 심사하지 못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9월 25일부터 9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4회 입시회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날 유기홍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제283회 입시회 휴회가 장기화되었던 것에 대해 군민들에게 사과하며 “우리 의회는 주민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대표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다”라고 하며, “행정에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것을 감사하는 기관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 제283회 입시회에서도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

여 군수의 설명과 답변이 필요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군민들이 부여한 권한에 대해 열심히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수께서는 하루빨리 완쾌하여 군수의 책임과 권한을 의회 입시회 등에 참석하여 설명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 김중문 의원은 “청년인구의 감소로 침체되어 가는 지역사회를 위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며, 장수지역 청년 여행사 사업과 문화관광해설사 양성, 장수 역사와 지역사회문화 축제 기획 단체 사업, 인터넷을 활용한 지역 농

산물 판매 및 홍보활동 추진사업, 청년 로컬푸드 레스토랑 운영, 농촌마을 공동체지원 사업 등을 지원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장수군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준비한다면 떠나려던 청년은 머물 것이고 떠났던 청년도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며 장수군 청년인구 감소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내놓으며 군정질문을 밝혔고, 이에 장수군은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들어가고, 현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정책에 적극 대응하여 한평의 청년이라도 더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이정아 주무관, ‘생활규제 개혁과제’ 장관 표창

진안군은 27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국민 공감 생활규제 개혁과제 공모’에서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aT센터 창조실에서 열리는 생활규제 개혁 공감 토크에서 규제개혁 공모제 우수과제 제안자로 기획실 이정아 주무관(사진)이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게 됐다.

이 주무관은 공모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사업의 바우처(1인당 50만원) 형태인 국민행복카드 사용처를 기존 산부인과 한의원에서 추가로 약국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선과제를 제안했다.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상에는 임신부가 병원진료 이외에 필요한 영양제, 철분제, 난임 부부의 약제비 등은 약국에서 결제가 불가능해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이번 우수과제 채택으로 앞으로는 약국에서도 사용이 가능토록 법령이 개선될 예정이다.

특히 진안군은 전국에서 4,000여 건

이 접수된 이번 공모에 참여하기 위해 지난 2월 군 자체공모를 실시해 54건의 규제를 발굴·제출했고 이는 전라북도가 제출한 196건의 28%에 해당하는 수치다.

또한 지난 5월 행안부의 1차 심사에서 선정된 97건 중 전라북도 총 13건 선정, 그 중 진안군에서 6건이 선정되어 유일하게 진안군이 최종 수상작에 포함됐다.

이 주무관은 “생활 속 작은 불편들을 규제개혁을 통해 바꿀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뿌듯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한민국홍삼특구 진안고원

세계주류품평회 금상

眞心 홍삼주

대한민국 홍삼특구 진안홍삼 · Korea Jinan Hongsam

www.jinansam.com 사)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 063-433-8398

지역 매아리



무주군의회, 119센터 근무자 격려

무주군의회가 27일 추석명절을 맞아 특별 경계근무를 하고 있는 무주 119 안전센터를 찾아 근무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위문품을 전달했다.

이번 방문은 민족의 추석명절을 앞두고 연일 고생하는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밖에도 군의회가 햇살요양원, 한마음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입소자들과 따뜻한 정을 함께 나누고, 종사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반딧불기관장회 복지시설들 찾아 위문

추석을 앞두고 황정수 무주군수를 비롯한 반딧불기관장회 회원 23여명이 27일 관내 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했다.

햇살 가득한 노인요양원과 무주9987 노인복지센터, 한마음요양원 등 시설을 찾은 회원들은 사과(5kg) 15상자를 전달하고 이용시설을 일일이 둘러보며 입소자들의 불편한 점을 살폈다.

이날 반딧불기관장회 회원들은 추석 연휴 고향에 가는 대신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경찰서 의경들과 군부대 부대원들도 격려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 대성지역아동센터 한자급수시험 모두 합격

장수군 대성지역아동센터는 공동모금회에서 야간보호사업 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올 1월부터 한자급수공부를 시작, 지난 5월 대한검정회 제75회에는 7명 응시해 전원 합격했고, 이번 8월 제76회에서는 11명이 합격했다. 오는 11월 제77회 시험준비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합격자는 김인영(중3) 준3급, 김인성(중3) 준4급, 조수인(초5) 준4급, 문혜진(중2) 5급, 양혜린(초6) 5급, 문해민(중1) 준5급, 박소현(초5) 준5급, 유연서(초3) 준5급, 박소희(초3) 6급, 문해명(초1) 8급, 조정인(초1) 8급 이상 11명이다.

/장수=고관호 기자